[논어한줄쓰기_24] 자하문효

子夏問孝. 子曰, 色難. 有事,
弟子服其勞. 有酒食, 先生饌.
曾是以爲孝乎?

자하가 효도에 대해 묻자, 공자
가 말하길, "얼굴빛을 온화하게
하는 것이 어렵다. 일이 있으면
제자가 그 수고를 감당하고, 술
과 음식을 마련하여 어른을 대접
한다. 이것만으로 효도라 할 수
있겠는가?"